

소견으로 수술 후 병리조직학적으로 새성낭종으로 진단된 28례를 대상으로 임상적 분석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성별비는 총 28례중 남자 15례, 여자 13례였고, 연령분포는 10대에서 30대까지가 21례로(75%) 가장 많았다.

2) 주 증상으로는 경부종물 11례, 종물크기증가가 11례로 가장 많았으며, 중상발현 후 내원까지의 기간은 20일에서 30년까지 다양하였으며 대부분 비암통성(75.1%), 유동성(78.6%), 표면이 평활한(85.7%) 종괴로 나타났다.

3) 발생부위는 경부전삼각부가 13례로 가장 많았으며, 28례중 흉쇄유돌근 상 1/3부위가 23례(82.1%)로 가장 많았고, 중 1/3부위가 2례, 하1/3부위가 3례였다.

4) 새성낭종의 Baily 분류상 제 II형이 20례(71.4%)로 가장 많았고, 제 I형 7례(25%), 제 III형 1례(3.6%)의 순이었다.

5) 새루가 동반된 경우는 총 20례중 총 6례였고 형태상 완전새루 1례, 불완전새루가 5례였으며, Work 및 Baily cleft sinus tract 분류상 제 I형이 1례, 제 II형이 4례, 제 III형이 1례였고 발생부위는 흉쇄유돌근 하 1/3부위가 3례, 중 1/3부위가 1례, 상 1/3부위가 1례, 외이도 하후벽 1례로 하부에 많았다.

6) 수술전 임상적 진단으로는 새성낭종으로 진단된 8례(28.6%)가 가장 많았고, 결핵선 임파선염이 6례(21.4%), 갑상설골낭종 2례, 낭성히그로마 2례 순이었다.

7) 병리조직학적 소견상 낭종내벽이 중충편평상 피로 구성된 경우가 22례(78.6%), 혼합형 4례(14.3%), 상피가 없는 경우가 2례있었다.

3

갑상선 종괴의 전산화단층촬영 소견 : 양성과 악성의 비교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진단방사선과학교실

정유미* · 최우석 · 오주형

목 적 : 갑상선 질환은 여러가지 진단 방법에

의해 진단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고해상능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양성 및 악성 질환을 감별하려는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전산화단층촬영(이하 CT)을 통한 연구는 드물어, 저자들은 CT를 이용하여 양성 및 악성 갑상선 질환의 감별진단에 도움을 얻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대상 및 방법 : 갑상선 종괴를 주소로 CT를 시행한 후 갑상선 절제술을 받은 15명을 대상으로 하여 조직학적 소견과 CT 소견을 후향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여자가 14명 남자는 1명이었으며, 연령 분포는 21~68세(평균 52세)였다. 조직학적 진단상으로 follicular variant 1예를 포함한 유두암 9례, 여포선종 2례, 결절성 비후 4례가 포함되었다. 사용된 CT는 GE 9800Quick과 Toshiba 900S 기종이었고, 절편은 5mm로 하였으며, 모든 환자에서 조영증강 후의 영상만을 얻었다. CT 소견은 피막 형성 및 주위 조직으로의 침범 유무와 관련된 종양의 경계, 고형병변의 양상, 낭성 변화 및 석회화의 유무, 임파절 전이 유무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 악성 종양(n=9)은 엽상 형태를 보이면서 부분적으로만 피막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고(n=7), 종괴의 고형 병변이 불균질한 저밀도로 나타났으며(n=7), 불규칙하게 경계지워지는 낭성 변화를 보였다(n=5). 양성 종양(n=6)은 조영증강이 잘 되는 피막에 의해 싸여있고(n=5), 고형병변이 비교적 균일하게 조영증강되었으며(n=6), 낭성 변화의 경계가 매끈하였다(n=5). 석회화와 고형 병변 내의 격막형성은 악성종양과(7/9) 양성종양(5/6)에서 공히 관찰되므로 감별에 도움이 이 되지 않았다.

결론 : 종양이 피막에 완전히 둘러싸여있지 않고 엽상 형태를 취하며, 고형병변이 불균질한 저밀도로 나타나고, 불규칙한 경계를 갖는 낭성 변화 등의 소견은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으로서, 이는 양성 종양과의 감별진단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1기 성문암 57례의 임상적 고찰

원자력병원 이비인후과